

## 2017년 3월11일, 후쿠시마로부터의 메시지

동일본 대지진 이후 6번의 겨울이 지났습니다.

한 아버지는 출입 금지 구역에서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딸의 유골을 발견했던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발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 후의 쓰나미 그리고 도쿄전력회사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피난 지역의 상당 부분이 해제되었으며 오다카역 이북 지역으로의 JR 조반선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쓰나미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프라도 순조롭게 복구 중입니다.

후쿠시마 현의 앞바다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 조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후쿠시마현산 농작물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 사계 품평회에서의 금상 수상 브랜드 수는 4년 연속 일본 전국 최고입니다. 후쿠시마의 온천은 일본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후쿠시마에서 희망의 불꽃이 되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8만명에 달하는 후쿠시마의 현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재건 활동과 노력에서 소외되어 고독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원전의 폐로, 오염된 물, 사라지지 않는 악질적인 소문들, 세상으로부터의 잊혀짐, 후쿠시마 전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인구 감소 등 지금 후쿠시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밝고 즐거운 면도 있고 수많은 도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라는 한 줄기의 빛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후쿠시마 현 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해체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에 대한 마음이 담긴 후쿠시마의 생산품들이 일본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만이 아니라 고령자들, 가족이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후쿠시마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후쿠시마가 이룩한 부흥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재해를 당한 후쿠시마지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

“꽃도 예쁘고 먹거리도 과일도 맛있고 또 후쿠시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누군가를 데리고 갈 것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따뜻한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으며 많은 격려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후쿠시마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싶다.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싫었다.”

이것은 피난 지역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표고버섯 재배를 재개한 어느 여성 농업인의 결심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우리들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며 다시 일어서서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후쿠시마만의 부흥만이 아니라 일본, 세계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지는 부흥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후쿠시마는 새로운 후쿠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17년 3월 11일

福島県知事 内堀 雅雄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

출처

1.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2016년 12월 25일 후쿠시마 민유신문(福島民友新聞) 게재 2016년 12월 26일 후쿠시마 민유신문 게재
2. “재해를 당한 후쿠시마지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  
“꽃도 예쁘고 먹거리도 과일도 맛있고 또 후쿠시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누군가를 데리고 갈 것이다.”  
2016년 11월 25일 지사와 후쿠시마현 표한 호텔 생활위생동업조합 청년부의 의견교환회에서 발언.
3.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싶다.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싫었다.”  
2016년 7월 7일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게재

